

사회

제때 집행 안되는 전력 소외계층 지원제도

지자체 - 한전 소통 짝 막혔다

고흥 촛불화재 할머니·손자 참사 막았을 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요금을 장기 납부하지 못하는 전력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과의 정보 교류 시스템 부재로 이들 세대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고흥군에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촛불을 사용하다 화재로 할머니와 외손자가 숨진 비극은 한전과 지자체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가 한전 측에 미납 및 전류제한 세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위기가정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각 지자체는 전류제한 세대 파악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실태파악조차도 중구난방

으로 이뤄지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에는 상시적으로 전기요금 장기체납에 따른 전류제한 세대에 대한 관리 규정 및 시스템이 없어 동절기가 다가올 경우 1년에 1~2차례 한전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달 22일 한전에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이상, 체납액이 3만원 이상인 전류제한 세대'에 대한 자료를 요청, 지난 6일 통보를 받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취한 조치였다.

하지만 한전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는 지난 21일 촛불 화재로 숨진 고흥의 조순 가정은 포함되지 않았

다. 촛불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는 지난달 30일 전류 제한기가 설치됐지만 수집된 자료의 기준일이 지난달 22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촛불 화재 세대는 50만원 이내에서 체납된 전기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즉각적인 정보 공유로 긴급복지의 혜택을 받아 체납된 전기요금이 납부됐더라면 촛불화재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 요금이 일정 기간 체납되거나 전류 제한기를 설치한 세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광주시 서구와 남구의 경우는 한전서광주지점과 연계해 1개월 이상 전류 제한기가 부설된 세대에 대

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동구와 광산구가 1년에 1~2차례 자료를 요청하고, 북구가 한전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을라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박상혁 대리는 "전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 1년 1~2차례 체납 세대에 대한 파악을 요청할 경우 통보해 주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도 특정 시기가 없고,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한전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보된 자료에도 주민번호가 없고 세주소 대신 예전 주소가 사용돼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교통안전문화 앞장”

광주지방경찰청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22일 광주시교육정보문화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검사가 여성피의자와 성관계

절도혐의 조사 도중... 검찰 착수

현직 검사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하고 이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 검찰본부에 검찰에 착수했다.

이준호 대검 검찰본부장은 22일 "재경지검의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검사에 대해 검찰 조사를 벌이고 있

다"며 "실무수습 검사와 사건 관계인 사이에 검찰 청사 내에서의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내사·수사 무마 명목으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기입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직후 초임검사의 성추문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검찰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검찰본부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재경지검에 파견된 A(30)검사는 이달 10일께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

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며칠 뒤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검사는 지검 자체 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지난 20일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말과 A검사의 지도검사에 전화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본부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습스

전남, 망치되는 조순가정

광주는 실태도 몰라

전남지역에는 1276세대 2656명에 이르는 조순 가정 구성원이 망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는 조순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마저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조순가정은 3146세대로 모두 7573명의 세대원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70세대(4917명)는 저소득 조순가정으로 지정돼 매월 최저생계비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또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못한 1276세대(2656명)는 일정 소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40세대 만을 파악하고 있다. 소득 및 한부모 가정 지원법에 따라 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미술품 구입에 65억 '핑핑'

교비 부담 사용 순천 제일대 총장 등 4명 불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미술품 구입에 65억원을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단법인 순천 제일대학 총장 성모(63)씨, 행정처장 공보(7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파면돼야 할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학원 이사장 성모(48)씨와 대학 인사팀장 이모(52)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장 성씨와 행정처장 공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백남준 작가의 작품 '유전자 신전'을 2억 5000만원에 구입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65억원의 교비를 들여 학교교육과 무관한 모두 270여 점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교내 미술관에 보관돼 있으며 '유전자 신전'은 규모

가 커 미술관 보관이 곤란하자 서울 소재 한 갤러리에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제일대의 연간 등록금은 140억원 규모로 장학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가용현금이 약 40억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 가운데 4분의 1인 10억여원을 매년 미술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 이사장 성씨와 인사팀장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총장 등과 갈등을 빚어 총장실을 점거하고 방화를 기도해 파면 처분을 받아야 할 교직원 2명을 징계하지 않고 4년여 동안 6억 2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법인 운영방식에 반대하는 교직원 해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1억1000만원을 교비로 충당하기도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목사가 아내와 성행위 음란물 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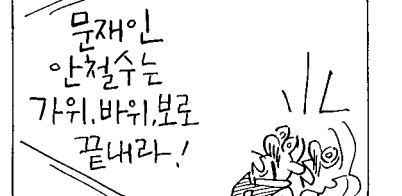
'회원 73만명' 성인사이트 운영자 등 22명 입건

가입자의 아내와 애인 신체가 담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국내 최대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F성인사이트 운영자 박모(35)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이트 내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회원 21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회원 73만명 규모의 이 사이트를 지난해 1월 인수

한 뒤 올해 9월까지 사이트 내의 아내·여친구 갤러리 등을 이용, 가입자들의 음란물 공유를 방조하고 회원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받아냈다.

입건된 회원들은 아내갤러리, 여친갤러리 등의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아내 및 애인의 음란사진과 동영상 등을 올려 회원들과 공유했다. 이들 중에는 아내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유포한 교회목사와 여친구의 음부 등을 찍어 올린 사진작가도 있었다. /임동훈기자 exian@



장애인 성매매업주

재청구 영장 기각

법원이 장애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 지역 성매매 업소 업주 A(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사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21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심심풀이 삼봉까지 입건하다..."



○겨울철 일자리가 줄어 일감을 찾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다방에서 심심풀이로 화투를 쳤다가 경찰서행.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허모(52)씨 등 3명이 지난 21일 오후 5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다방에서 관돈 10만8000원을 절고 100점당 100원짜리 '삼봉' 도박을 했다던 것.

○하씨 등은 경찰에서 "일감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소일거리로 화투를 쳤는데 입건까지 해야하느냐"며 푸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Indara Eye Clinic. Text: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Indara Eye Clinic, www.indara.co.kr, 062-368-5075.

Advertisement for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treatment. Text: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Advertisement fo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Daesan Primo Hair). Text: 21년 가발 명가, 50만원~. Includes photos of models and contact info: 062-673-5858.